

#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은 반목과 경쟁을 넘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것인가?

조문영 엮음, 『문턱의 청년들: 한국과 중국, 마주침의 현장』(책과함께, 2021)을 읽고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 I. 들어가며: 갈등하는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

포털 사이트의 중국 관련 기사나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열게 되면 혐오 표현이 가득하다. 기사나 콘텐츠의 내용이 심지어 중국을 비판하는 것이더라도 중국을 다룬 내용이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내용을 읽거나 보지도 않고 조건반사적으로 중국이 싫다는 감정을 뽐어내는 것이다. 이 댓글들 속에서 중국인들은 권위주의적인 자신의 체제를 다른 어떤 체제보다 우수하다고 여기고 주변 국가들에 강압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로 그려진다. 그 속에서 다양한 중국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우월적이고 맹목적인 애국주의자의 모습으로 납작하게 일원화되어 버려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비난과 혐오는 정당화된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반대 및 혐오 정서는 최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퓨리서치센터의 지난 20년 동안의 세계 각국의 반중감정 조사를 살펴보면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주요 국가들에서 반중감정이 조금씩 고조되기 시작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급격하게 반중감정이 고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는 2016년 사드배치 사태 이후 반중감정이 늘어나기 시작해 2019년 홍콩 반송중시위,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반중정서가 고조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반중 정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젊은 세대인 20대에서 반중감정이 아주 높게 나온다는 것이고 여러 언론 및 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세대에서는 반

중감정이 반일감정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sup>1</sup>

또한 역으로 중국 온라인에서 애국적 경향 또한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젊은 세대가 개인의 자유와 즐거움을 찾는 사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사건에 대해서는 애국주의적 반응들이 결집되는 민족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의 양면적인 특성은 중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은 온라인 공간을 통제 일변도로 또는 억압의 대상으로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별로 선별적인 통제를 선택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인권, 자유 등의 문제를 다루거나 반체제적 성격을 드러내는 성향의 게시물이나 사이트 등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검열하지만 한편에서 자국의 부상을 선전하거나 민족주의적 담론을 조장하는 사이트 등은 일정 정도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온라인 환경 속에서 중국의 청년 세대는 21세기 들어 G2라는 강대국으로 부상한 자신의 조국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등장한 중국 온라인에서의 젊은 애국주의자들은 일명 ‘샤오펀홍(小粉紅)’<sup>2</sup>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이전 세대의 온라인 민족주의자들인 ‘펀칭(憤青)’과는 그 결이 좀 다르다. 분노한 청년들이란 뜻의 펀칭들은 사회와 국가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이를 대안적인 정치체제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받아 왔던 애국주의적 교육을 바탕으로 외부로 강력한 집단 정서를 표출하는 쪽으로 그 불만을 해소해 왔다. 펀칭이 비교적 진지하게 민족주의적 분노를 표출하는 쪽이었다면, 샤오펀홍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일종의 유희적인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조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표현한다. 이들은 펀칭이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이라는 조국을 마치 아이들을 대하듯 한다(류

<sup>1</sup> 2020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개 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50대 이상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Pew Research Center, 2020). 2021년 시사인의 조사에서도 한국의 2030세대의 반중 정서가 4050세대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오성, 2021).

<sup>2</sup> 샤오펀홍은 분홍색이란 뜻으로 이들이 처음 등장하게 된 인기 팬덤 사이트의 배경색이 분홍색이었기에 그런 명칭이 붙게 되었다.

하이룽, 2022: 96-107). 이들의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행위는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과 충돌을 낳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청년 세대와 가장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한국의 청년 세대 역시 ‘국뽕’이라는 속어로 불리듯이 일명 ‘K-문화’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에 마치 아이돌 팬들끼리 경쟁하듯이 서로의 체제와 문화가 우월하다며 충돌하는 중이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용화되고 번역기가 진화하면서 이들은 각종 SNS와 동영상 사이트 등 온라인의 글로벌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서로 말을 섞고 갈등한다.

## II. 답아도 너무 답은 한중 청년들의 삶

온라인에서 한중 양국의 청년들은 대립하지만 두 나라에서 최근 몇 년간 청년 담론과 관련한 유행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들의 삶은 무척 답아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4불청년(四不靑年)’이라는 청년담론이 유행하고 있다. 중국 청년들이 연애하지 않고(不戀愛), 결혼하지 않고(不結婚), 집을 사지 않고(不買樓), 아이를 낳지 않는(不生子)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했던 ‘N포세대’와 완전히 같은 뜻이다.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에서 취업, 내 집 마련까지 합쳐 5포세대로 일컬어지다가 결국 건강, 인간관계를 비롯해 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N포세대로까지 불린 것이다. 중국의 4불청년도 조만간 N불청년으로 불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업자녀(全職兒女)’라는 신조어도 중국에서 유행이다. 2023년 5월 공식 발표된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0.8%로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집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부모나 조부모에게 월급을 받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의 전업자녀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부모와 노동계약을 쓰기엔 완전한 의존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상황은 한국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를 빗대어 부르는 말인 ‘갱거루족’과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대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영혼까지 끌어모으는다는 ‘영끌’이라고 표현해 왔다. 중국의 부

동산 상황도 다르지 않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대도시들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끌어모은 것을 최근에는 ‘우공상환(愚公還貸)’이라고 까지 부른다. 대를 이어 산을 옮긴다는 뜻의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사자성어를 빗대어 대를 이어 갚아도 대출금을 다 못 갚을 지경이라는 것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유행어다.

한국과 중국의 청년 세대의 상동성은 단순히 온라인 신조어들에서 그치는 것일까? 서평의 대상이 되는 이 책 『문턱의 청년들: 한국과 중국, 마주침의 현장』(이하 ‘문턱의 청년들’)은 이 두 집단의 상동성에 주목한 거의 유일한 연구저작이다.<sup>3</sup> 그간 알렉 애쉬의 『우리는 중국이 아닙니다』나 예룬 더클룻·앤소니 핑 공저의 『차이나 유스 컬처: 새로운 중국을 이끌어 갈 젊은이 문화를 말하다』 등이 번역 출간된 적은 있었으나 이 책들은 주로 중국 젊은이들의 삶의 양태를 취재해 소개하거나 중국 청년 문화의 양상과 그 변화의 궤적을 추적한 내용들이었다(애쉬, 2018; 더클룻·핑, 2017). 하지만 『문턱의 청년들』은 편저자 조문영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을 상수로 구별하는 대신, 두 나라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국경이라는 주권적 경계뿐 아니라 자신을 가로지르는 여러 다른 경계와 씨름하면서 어떤 궤적과 실천을 만드는가를 현장연구를 통해 살폈다.”(조문영, 2021: 13)

『문턱의 청년들』은 한국과 중국 양국 청년들의 삶의 서사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제들을 교육, 취업 및 노동, 주거, 연애와 결혼, 생애기획 등으로 나눠 각 연구자들이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집필되었으며, 여기에 한국 유학 중인 젊은 세대의 중국인 연구자들까지 결합해 총 1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이 돋보이는 점 중 하나는 편저서임에도 불구하고 각 장의 글들이 각각 책 속의 다른 글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한국에서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출간되는 연구서들의 경우, 전반적인 기획 취지에 맞춰 참여 연구자들이 주제를 나누고 그 이후에는 각각 연구를 진행해 논문을 발표하고 그대로 모여서 출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문턱의 청년들』을 읽다 보면 거기

<sup>3</sup> 2016년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청년 세대를 각각 여러 연구자들이 분석한 편저서인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가 있었으나 그 책에서는 중국 청년 세대에 대한 분석이 1980년대 이후 출생 세대인 80허우(80後) 세대 위주로 되어 있어 당시에도 보다 젊은 세대인 20대 90허우(90後)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강명구 외, 2016).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출간하는 과정에서 각 장의 집필자들 간에 서로 세심한 조율과 상호참조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자들 간의 소통과 상호참조로 인해 이 책은 각 연구의 필드인 한국과 중국의 개별 현장을 넘어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책의 집필 취지를 더 잘 드러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책의 주된 내용을 각 연구 주제들 중 몇 가지를 뽑아 재구성해 살펴보자.

### III. 교차하는 기시감

『문턱의 청년들』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기시감’이다. 분명히 베이징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인데 이 베이징을 서울로 바꿔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우선 중국의 주거와 부동산 문제를 다룬 7장을 살펴보자. 이 장에서 자세히 알려 주고 있듯이 베이징의 부동산과 교육 문제 간의 관련성은 매우 깊다. 베이징에도 명문 학교를 중심으로 우수 학군지역이 있어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은 ‘쉬에취팡(學區房)’이라 불리고 평당 8,000만 원이 넘어가 낡은 25평 정도의 아파트가 20억 원이 넘어간다고 한다. 한때 강남의 8학군, 현재 대치동, 목동 등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이 장의 인터뷰이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지만 베이징에서 자식을 교육시켜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매달 상환해 가며 일명 ‘팡누(房奴)<sup>4</sup>’라는 부동산에 저당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로 돌아와 보자. 7장의 인터뷰이들인 중국 여성들은 중국에서는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이고 대부분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지만 비혼의 젊은 세대 여성들은 서울에서 어떻게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가? 이 책의 1장에서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울의 주거비용의 문턱은 너무 높아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비정규직 청년 세대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다.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세대에게 전월세보증금

<sup>4</sup> 지역하면 ‘집의 노예’라는 뜻으로 한국에서 쓰이는 말인 ‘하우스 푸어’로 번역할 수 있다.

대출 제도를 실시했지만 도리어 그 제도로 인해 전세가가 대폭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1억까지 대출을 받게 되자 부동산 시장이 일단 “1억을 기본으로 누구나 깔고 들어와 버리는” 한도까지 전세가를 올려 버린 것이다. 1장의 인터뷰이들이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집을 공유하는 공동주거전략이었다. 비혼 청년 여성들은 한편으로 주거 비용을 낮추고 또 한편으로 일종의 대안가족이자 우정의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뜻으로 셰어하우스를 꾸려 나가기로 했다. 여전히 다른 가족들의 결혼 압박이나 주변의 배타적인 시선도 존재하고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소박하게나마 다른 대안을 선택지로 삼은 것이다.

그렇다면 상하이와 베이징, 서울과는 다를까? 책의 3장 결혼과 비혼 사이 갈림길에 있는 상하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에서도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집을 마련하는 일이고 그 비용을 부모 세대에겐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웬만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비혼을 선택하는 상하이 여성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은 정상을 벗어난 ‘잉여여성’이라고 호명되며 이들을 경멸하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팽배해 있다.

다음으로 노동과 취업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 책의 5장에서는 한국의 동남권 산업도시인 울산, 창원, 거제 등 지역에서 학생들의 취업 경로와 현황을 추적한다. 이 분석에 따르면 ‘아빠 세대’ 정규직 노동자들은 1980년대 말부터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내 일정한 요구를 기업과 국가에 관철시켜 일종의 ‘노동계급 중산층’을 형성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과정을 거쳐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된 이중노동시장과 위협의 외주화가 현장의 일상이 되었다. 청년 세대는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와는 달리 공장의 비정규직인 생산직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인 플랫폼 노동에서도 다르지 않다. 책의 6장에서는 한국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는 세 청년을 만나 그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데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조금 차이는 있을 지라도 중국의 공업도시들에서 사회주의 시기 일명 ‘철밥통(鐵飯碗)’이라 불리며 평생직장인 국유기업에서 일하던 부모 세대와는 다른 현실에 처해 있는 중국 청년들과도 비슷하다. 중국에서도 1990년대 중후반 대대적인 경제 개혁 조치로 국유기업에서 중국 특색의 정리해고가 벌어졌고 국가가 노동력을 배치하던 방식에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넘어갔다. 그렇기에 이후 세대들은 좋은 일자리를 위해 무한 경쟁에 나서거나 아니면 끊임없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임시직으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중국의 플랫폼 노동 현실도 한국과 거의 유사하다. 중국에서도 최근 10년간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배달과 택배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특히 이 직종으로 청년 세대의 유입이 증가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경기와 양질의 사무직 일자리들이 줄어들어 고학력 청년 세대가 이 일자리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의 가장 큰 배달 플랫폼 업체 중 하나인 메이뽀(美團)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자 6만여 명, 대졸자 17만 명이 이 회사에서 배달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박민희, 2021: 183).

노동이 아닌 창업의 현장은 어떨까? 이 책의 9장에서는 중국 선전과 한국의 성수동의 사회 혁신 스타트업의 현장을 오가며 두 나라 청년 창업가들의 풍경을 보여 준다. 저자에 따르면 이 두 테크노-소셜 벨리는 “자유민주주의’ 한국과 ‘사회주의’ 중국 엘리트 청년들 간의 정서적 유대가 제 나라의 다른 계층 청년들과의 교감보다 더 뚜렷한 세계”였다(조문영, 2021: 300). 주거와 노동, 젠더, 창업 등 청년 담론과 연결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중 양국 청년들이 뚜렷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능력주의와 연결된 공정성 담론이었다. 이것은 양국에서 ‘노오오오력’과 ‘분투(奮鬥)’라는 강력한 주문과 연결되어 위계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이 책에서는 한중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과 뒤섞임을 보여 준다. 한국/북한, 중국/대만이라는 분단 체제 속에서 이들 각각은 어떻게 교류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로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10장과 11장을 통해 보여 준다. 또한 12장과 13장에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중국인 한류 팬덤들과 유학생들의 삶을 통해 이들의 애환을 드러내는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상호 이해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 IV. 청년-어셈블리지와 현장 연구의 미래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 동반자로 삼고 그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윤석열, 2023년 7월 6일 청년정책 점검회의

“청년들이 이상을 가지고 과감히 책임지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기꺼이 분투해야만 중국 청년들에게 힘이 생겨나고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희망이 가득 할 수 있다.”

시진핑, 2023년 6월 28일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지도부와의 대화

일부 낚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한중 양국의 지도자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자국의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려 노력하는 중이다. 이러한 시도는 청년들을 국가 안으로 동원하는 동시에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변하지 않고 더 악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냉소를 낳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보통 비판적인 연구는 저항하는 청년이라는 서사를 의도하기 쉽다.

하지만 『문턱의 청년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한중 양국의 청년들을 절망적인 사회 구조의 피해자로 그려 내거나 사회의 불합리함에 항거하는 저항자로 위치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은 청년 담론의 전형적인 서사를 빗겨 나서 양국 청년들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 과정의 얽힘들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아마도 편저자인 조문영의 ‘어셈블리지(assembly)’라는 개념을 이용한 문제 의식 때문일 것이다. 어셈블리라는 개념과 시도는 편저자의 이 책 이후의 단독 저작인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에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난다(조문영, 2022). 그에 따르면 “어셈블리라는 다양체를 조립하는 부분들은 유기적인 총체성과는 달리 매끈한 전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 연구나 저항적 실천이 익숙한 언설, 규범, 도구를 재생산하면서 병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일 때,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기존과 다르게 배치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계기를 제공한다.”(조문영, 2022: 8) 즉, 어셈블리지는 어떤 대상을 “여러 이질

적인 행위자들이 연결과 단절을 거듭하면서 형성되는 다양체”로 다르게 배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조문영, 2022: 324). 그렇기에 이 책은 한편에서 ‘한중 관계-어셈블리지’이자 ‘청년-어셈블리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어떤 대상과 문제들을 접함에 있어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

한편으로 중국의 노동과 페미니즘에 관한 문제들이 현장 연구를 통해 좀 더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물론 중국의 노동과 페미니즘 문제가 한국의 사례들과는 달리 좀 더 밀접한 현장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간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마도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한 현장연구의 어려움일 때문일 것이다. 책의 3장과 4장에서 중국 사회에서 결혼의 상품화, 비혼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 인터넷 방송 여성 BJ에 대한 부분적인 성 상품화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 등의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지만 보다 정치사회적인 맥락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서점 등에서 페미니즘이나 관련 주제를 다룬 도서들의 판매량이 급속히 늘기도 했다. 비록 여러 검열이나 탄압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책의 2장에서 다뤄지듯이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오히려 청년 세대 남성들의 이퀄리즘이나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론이라는 백래시에 마주하고 있다면, 중국에서는 사회 내의 논의의 확산이나 토론이 이뤄지기도 전에 당-국가의 검열로 인해 원천차단되어 있는 현실이다.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광둥지역의 노동 NGO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으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벌어진 자스키지(Jasic Technology, 佳士科技股份有限公司) 사건<sup>5</sup> 이후 중국의 노동 현장에 접근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다.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은 장쩌민 시기나 후진타오 시기에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일당 통치를 전

<sup>5</sup> 2018년 자스키지라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이어지자 노동자들이 항의에 나서게 됐고 이에 중국 여러 대학의 마르크스주의 동아리들이 노동자투쟁지원단을 구성해 연대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 노동자와 학생들은 당국에 구금되고 강력한 탄압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연대활동에 나선 사회주의 신념을 가진 대학생들이 탄압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하남석, 2020).

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지당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그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현지의 인터뷰 대상자나 연구협력자들이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Tan et al., 2023). 향후 만약에 『문턱의 청년들』의 후속 연구가 기획된다면 중국에서의 현장 연구가 넘어 서야 할 벽이 높게 쌓인 셈이다.

## V. 나가며

『문턱의 청년들』은 2년 전에 나온 책으로 현재 시점에서 약간의 시차가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으며 각 장에 나오는 이 청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더 궁금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1장에서 공동주거를 통해 비록 전세지만 세 명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이들은 올해 전국을 강타했던 전세 사기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 5장에 나왔던 지역의 비정규직 청년들, 6장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해마다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을까? 9장의 한국과 중국 양국의 스타트업 청년 기업가들은 주식 시장의 부침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10장과 11장의 분단과 마주해 교류의 문을 열어나가려던 한국과 중국, 대만의 청년들은 급속히 냉각된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벽을 마주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책 곳곳에서 등장하는 중국 청년들은 제로코로나 정책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냈으며 혹시 백지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떠올려 보니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진 것만 같고 한중 양국 관계는 더 악화일로에 있는 듯하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청년들은 마주 보고 서로에게 샷대질을 하며 마구 목청을 높여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온라인의 댓글들을 보면 그 혐오 감정에 절망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청년들의 어려움을 보도하는 기사나 동영상 콘텐츠에는 그 이전의 기사들보다 악성 댓글은 줄어들었고 그 처지에 공감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렸다. 어쩌면 이 두 나라의 청년들은 마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에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서로에게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음을 느끼고 함께 손을 내밀어 문턱을 건널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전면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이 책의 몇몇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틈새들 속에서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며 무언가 공동의 작은 연대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하다. 서로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연대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며, 『문턱의 청년들』이야말로 그러한 시도에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저자들이 고된 현장연구를 통해 그 어려운 길을 내어준 것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투고일: 2023년 7월 27일 |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31일

## 참고문헌

- 강명구·김홍중·신혜선. 2016.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진인진.
- 류하이룽 편저. 김태연 외 역. 2022. 『아이들이 된 국가: 중국의 인터넷 문화와 팬덤 민족주의』. 갈무리.
- 박민희. 2021. 『중국 딜레마』. 한겨레출판.
- 애쉬, 알렉 저. 박여진 역. 2018. 『우리는 중국이 아닙니다』. 더퀘스트.
- 이오성. 2021.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구일까?” 『시사인』(6월 18일).
- 더클랏, 예룬·앤소니 핑 저. 김정아 역. 2017. 『차이나 유스 컬처: 새로운 중국을 이끌어갈 젊은이 문화를 말하다』. 시그마북스.
- 조문영 편. 2021. 『문턱의 청년들: 한국과 중국, 마주침의 현장』. 책과함께.
- 조문영. 2022.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 글항아리.
- 하남석. 2020. “시진핑 시기 중국의 노동운동 탄압과 저항의 양상들.” 『도시인문학연구』 제12권 1호.
- Pew Research Center. 2020.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10/06/unfavorable-views-of-china-reach-historic-highs-in-many-countries/>(검색일:

2023. 7. 13.).

Tan, Xiao, Nahui Zhen, Leiheng Wang, and Yue Zhao. 2023. "Doing Fieldwork in China During and Beyond the Covid-19 Pandemic: A Study." *Made in China Journal*. <https://madeinchinajournal.com/2023/06/26/doing-fieldwork-in-china-during-and-beyond-the-covid-19-pandemic-a-study/>(검색일: 2023. 7. 21.).